

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 293호 (2015-25) 발행일 : 2015. 09. 14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학업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비지출 구조와 교육비 부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위소득(1, 2분위) 가구는 1998-2014년 동안 주거비 지출 비중이 상승한 반면, 2010년 이후부터 교육비 비중이 주거비 비중보다 작아지기 시작함. 반면 상위소득(4, 5분위) 가구는 같은 기간에 주거비 비중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2000년 이후 계속 전체 소비지출에서 교육비 지출 비중이 가장 컸음

2000년 이후 실질교육비 지출액을 비교하면, 상위소득(5분위) 가구가 하위소득(1분위) 가구에 비해 월평균 교육비를 약 2배 더 지출하였음

하위소득(1, 2분위) 가구는 두자녀 이상이 되어도 교육비 지출 비중을 두자녀일 때보다 늘리지 못하는 반면, 상위소득(4, 5분위) 가구는 두자녀 이상이 되면 교육비 비중이 계속 증가함

따라서,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주거지원, 대학생 학자금지원, 다자녀 세액 공제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박종서
부연구위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

1. 서론

-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부양부담은 현재까지 과중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 부양 부담의 큰 부분을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이 차지하고 있음. 현재 한국의 가족이 느끼는 이와 같은 부양 부담을 학자들은 기능적 과부하(functional overloading) 상태로 설명하고 있음¹⁾
 - 현재 자녀는 단순한 부양의 대상을 넘어 적극적인 인적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연구에 따르면 1990년대 들어 자녀가치가 교육적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적 차원에서 전환되었고,²⁾ 실제 부모가 자녀 교육에 집중하는 경향은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우리 사회의 주요한 현상으로 인정되고 있음
 - 다른 한편, 이와 같은 자녀 양육 부담은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출생아수 감소 이유가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용의 상승” 때문이라는데 동의하는 비율이 96.1%로 나타남³⁾

1) 장경섭, 2011, '위험회피' 시대의 사회재생산: 가족출산에서 여성출산으로?, 가족과 문화 23(3:1-23)

2) 박종서 외, 2014, 출산 양육의 사회·문화적 환경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 외, 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출산 결정을 자녀의 수와 질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는 기존의 경제학 모델을 따른다면,⁴⁾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교육 투자를 확대하고 자녀수를 제한할 것임
 - 즉, 현재의 출산율 하락은 자녀의 질적 측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양적 측면에서 역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렇게 가족의 부양 책임은 단지 가족복지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재생산의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족부양 책임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완화할 것인가는 학술적, 정책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가구의 소비지출 구조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교육비 부담과 관련한 특성을 분석하여 출산지원 정책의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1998~2014년) 원자료이며,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로 분석 대상을 한정하였음
 - 여기서 자녀는 13세 이하 미취학 자녀와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각 학교 급에 재학 중인 자녀로 정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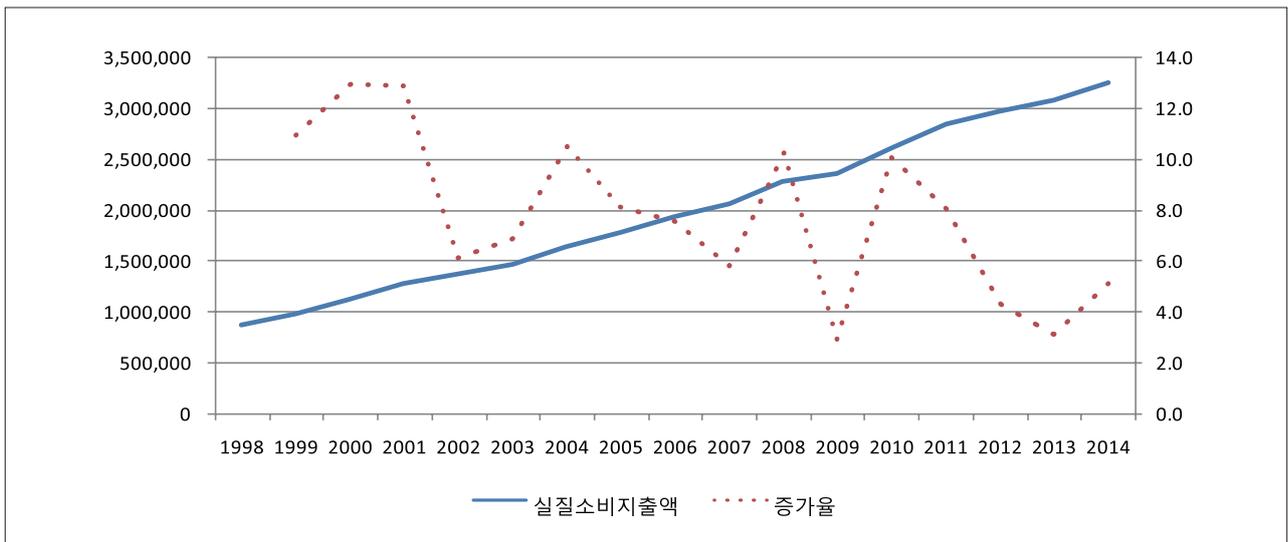
2. 학업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비지출 변화

가. 소비지출의 규모와 증가율

- 1998년부터 2014년까지⁵⁾ 학업자녀가⁶⁾ 있는 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비지출액⁷⁾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었음
 -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비지출액은 1998년 955,584원, 2000년 1,199,404원, 2010년 2,655,977원, 2014년 3,279,204원으로 증가
 - 월평균 실질소비지출액 증가율은 1999년 11.1%, 2000-2009년 8.1%, 2011-2014년 4.5%로, 전체적으로 둔화 추세를 나타냄

[그림 1] 월평균 실질소비지출액 규모와 증가율 추이

(단위: 원,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4) Becker, G, 1993,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5)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가구원 학력 관련 항목은 1998년 이후부터 조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는 분석대상을 '학업자녀가 있는 가구'로 한정하고, 1998년부터 2014년까지 자료를 분석하였음
 6)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학업 자녀'의 정의는 만 13세 미만의 미취학 미혼자녀 또는 초등학교에서 대학원까지 재학 중인 미혼자녀를 말함. 미취학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한 이유는 장애 등으로 인하여 취학연령이 늦어지는 경우를 포함하면서 30-40대 미취학 미혼자녀를 제외하기 위한 것임.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학업자녀'는 동거 자녀 및 비동거 자녀를 포함하며, 따라서 가계동향조사 원자료에서 제공하는 비동거 '학업자녀'와 조차적 정의가 다르다는 점을 밝혀둠
 7)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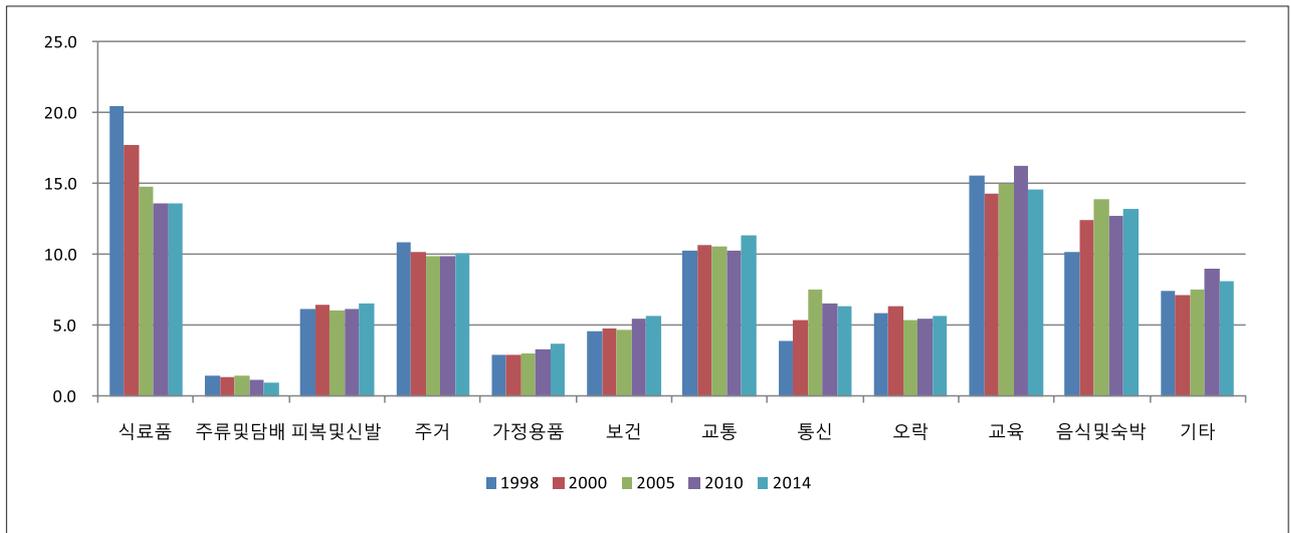
나. 소비지출 항목 구성

- 학업자녀가 있는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 중에서 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식료품, 주거, 교통, 교육, 음식 및 숙박비 항목에 집중되어 있음
 - 식료품비 지출 비중은 1998년 20.5%에서 2005년 14.8%, 2010년 13.6%, 2014년 13.6%로 감소
 - 주거비 지출 비중은 1998년 10.9%에서 2008년과 2010년 9.5%까지 감소했다가, 2014년 10.1%로 다시 증가
 - 교육비 지출 비중은 1998년 15.6%에서 2003년 14.2%로 감소했다가, 2008년 18.4%까지 증가한 후 2014년에 14.6%로 다시 감소
 - 음식 및 숙박비 지출 비중은 1998년 10.2%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4년 14.2%로 증가했다가 점차 감소하여 2014년에는 13.2%로 나타남

-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음식 및 숙박비의 합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8년에 57.2%, 2010년 52.5%, 2014년 51.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2] 전체 소비지출에서 항목별 비중의 변화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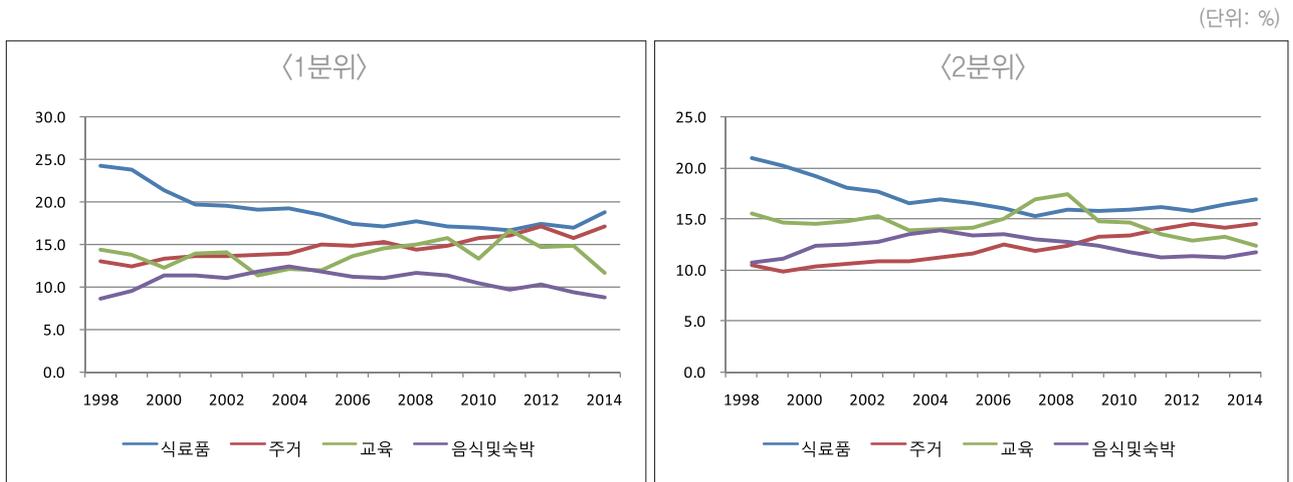
다. 소득분위별 주요 항목 구성변화

- 소비지출 항목 중 주요항목의 지출 비중을 소득분위별로⁸⁾ 구분해보면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남
 - 소득 1분위 가구의 경우 1998년부터 2014년까지 네 항목 비중의 순서가 거의 바뀌지 않았음. 즉, 식료품 비중이 제일 높고, 다음은 주거, 교육, 음식 및 숙박비 순이었음. 다만, 2010년 이후 교육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였음
 - 소득 2분위 가구는 1998년부터 2008년 중 네 항목의 비중 구성이 식료품비, 교육비, 음식 및 숙박비, 주거비 순이었으나, 2010년에 식료품비, 교육비, 주거비, 음식 및 숙박비 순에서, 2014년에는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음식 및 숙박비 순으로 변화됨

8) 소득분위는 년 간 가구총소득을 가구원수로 균등화한 후 5분위로 구분하였음

- 하위소득(1, 2분위) 가구의 경우 1998-2014년 동안 주거비 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식료품비와 음식 및 숙박비 지출 비중은 감소함. 이런 변화 과정에서 2010년 이후 교육비 비중이 주거비 비중보다 작아지기 시작함
 - 하위소득(1, 2분위) 가구는 주거비 상승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다른 항목의 비중을 줄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런 맥락에서 교육비 지출의 비중도 감소한 것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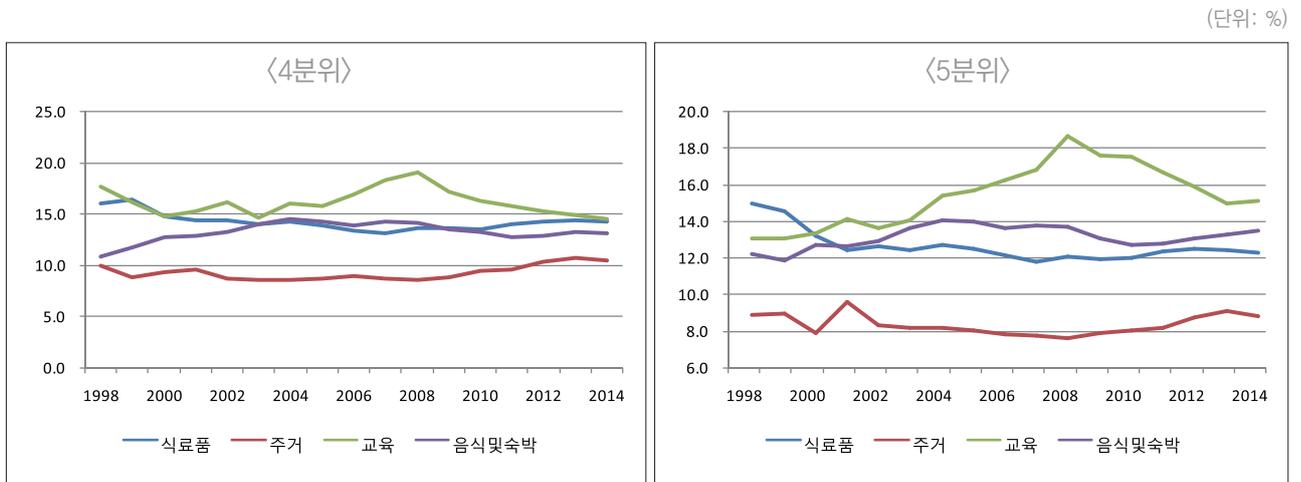
[그림 3] 소득분위별 주요 지출 항목의 비중 변화(1, 2분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 소득 4분위 가구는 네 가지 주요 소비항목의 구성에서 전체적으로 교육비, 식료품비, 음식 및 숙박비, 주거비 순으로 구성됨
- 소득 5분위 가구는 2000년 이후 지출비중 항목 구성의 순서가 바뀌지 않았는데, 교육비, 음식 및 숙박비, 식료품비, 주거비 순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
- 상위소득(4, 5분위) 가구는 하위소득(1, 2분위) 가구와 달리 1998년 이후 상대적으로 주거비 비중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 또한 2000년 이후 계속 전체 소비지출에서 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했음

[그림 4] 소득분위별 주요 지출 항목의 비중 변화(4, 5분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3. 학업자녀가 있는 가구의 교육비 지출 변화

가. 교육비 지출 규모와 증가율

- 학업자녀가 있는 가구의 1998-2014년 기간 월평균 실질교육비 지출액의 평균은 362천원
 - 전체적으로 실질교육비 지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였으나, 2009년에는 전년대비 증가율이 -4.7%로 감소한 것이 특징
 - 전체 소비지출에서 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18.4%로 정점에 도달 후, 2009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됨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비지출 중 교육비 지출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됨

〈표 1〉 학업자녀가 있는 가구의 교육비 지출 변화

(단위: 천원, %)

구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전체
지출액	158	160	179	208	226	231	273	297	342	385	455	434	462	485	485	486	507	362
비중	15.6	14.6	14.3	15.0	15.3	14.2	15.0	15.0	16.1	17.4	18.4	16.7	16.2	15.8	15.1	14.7	14.6	15.6
증가율	-	1.2	11.4	16.4	8.7	2.3	18.0	8.9	15.2	12.6	18.1	-4.7	6.3	5.0	0.1	0.2	4.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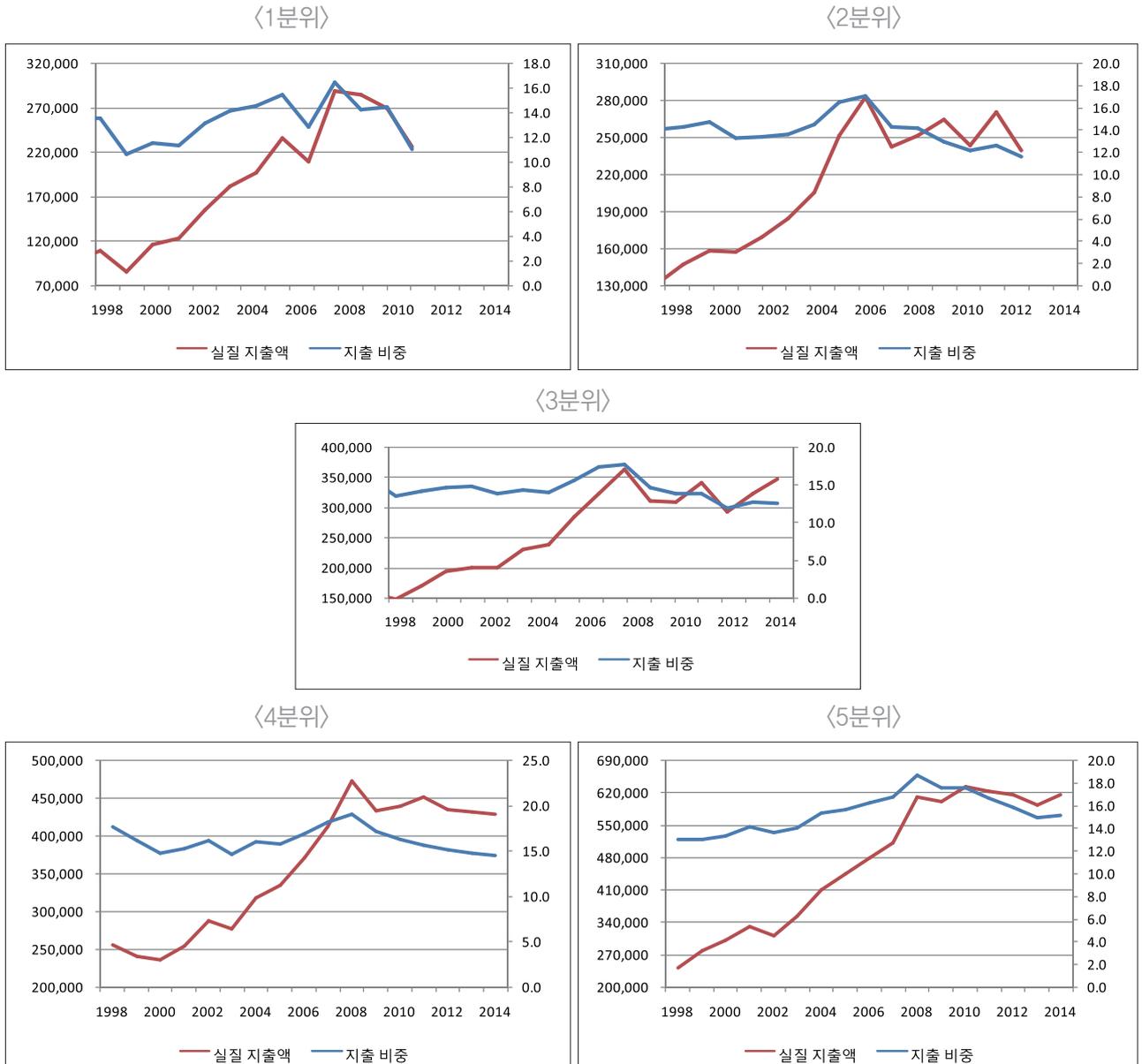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나. 교육비 지출의 소득 분위별 특성

- 학업자녀가 있는 가구의 월평균 실질교육비 지출액과 비중을 소득분위별로 구분하면 몇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음
 - 1998년부터 2014년까지 월평균 실질교육비 지출액은 점차 증가하는데,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 정점에 이른 후 200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함
 - 소득 1분위 가구는 예외를 나타내는데, 같은 기간 중 2011년에 정점에 이르고 지출액은 292천원, 비중은 16.7%임. 소득 5분위 가구도 예외를 나타내는데, 같은 기간 중 2010년에 정점에 이르고 지출액은 632,530천원, 비중은 17.6%임
 - 소득 2분위 가구는 2008년에 교육비 지출 286천원, 비중은 17.4%, 소득 3분위 가구는 2008년에 교육비 지출 373천원, 비중은 18.5%, 소득 4분위 가구는 2008년 교육비 지출 473천원, 비중은 19.1%, 소득 5분위 가구는 2008년 교육비 지출 632천원, 비중은 18.7%이었음

[그림 5] 소득분위별 교육비 지출액과의 비중 변화(1-5분위)

(단위: 원,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 소득 1, 2, 3, 4분위 가구는 실질교육비 지출액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비중도 감소하였지만, 소득 5분위 가구만 예외적으로 비중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지출액은 최고 정점시의 지출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 2000년 기준으로 상위소득(5분위) 가구는 하위소득(1분위) 가구에 비해 교육비를 2.8배 더 지출하였고, 2014년 기준으로 2.6배 더 지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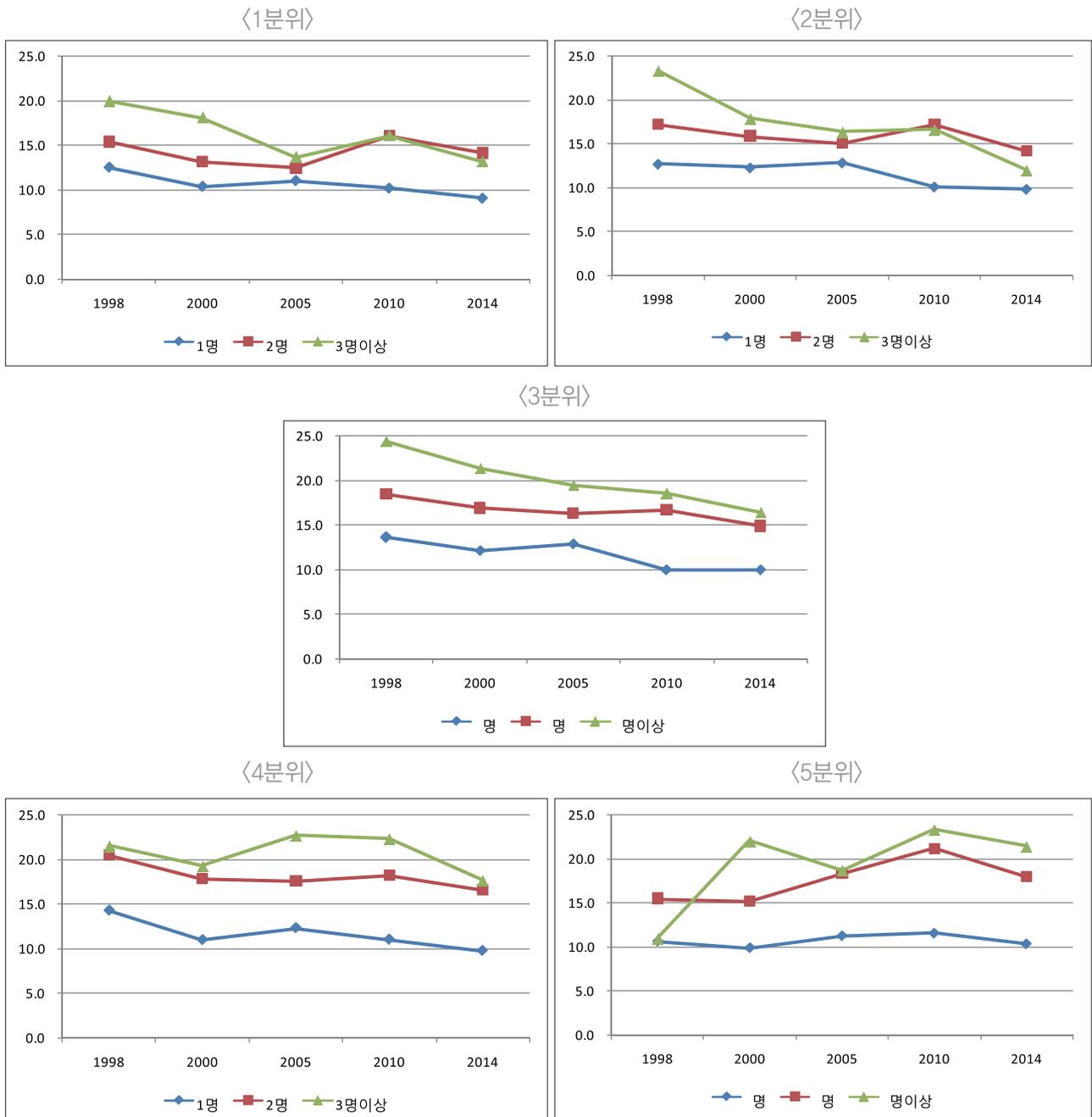
다. 자녀수에 따른 변화 특성

- 학업자녀가 있는 가구의 교육비 지출 변화를 학업자녀 수에 따라 구분해 보면, 중요한 함의를 찾을 수 있음
 - 소득 1분위 가구의 경우 2005년 이전까지는 두 자녀보다 세 자녀 이상 가구의 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았음. 그러나 2005년 이후에는 세 자녀 가구가 두 자녀 가구의 교육비 지출비중을 넘지 않고 있음

- 소득 2분위 가구에서도 2010년 이후에 세 자녀 가구의 교육비 지출비중이 두 자녀 가구의 교육비 지출비중보다 낮음
- 소득 3분위 가구와 소득 4분위 가구의 경우 전 기간에 걸쳐 세 자녀 가구의 교육비 비중이 두 자녀 가구의 교육비 비중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남
- 소득 5분위 가구의 경우 1998년을 제외하고 전 기간에서 세 자녀 가구의 교육비 비중이 두 자녀 가구의 교육비 비중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남
- 요약하면, 하위소득(1, 2분위) 가구는 두 자녀 이상이 되어도 교육비 지출 비중을 두 자녀일 때보다 늘리지 않거나 못하는 반면, 상위소득(4, 5분위) 가구는 두 자녀 이상이 되면 자녀 수 만큼 교육비 비중을 증가시켰음

[그림 6] 소득분위별 학업자녀수별 교육비 비중의 변화(1-5분위)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4. 요약 및 정책적 함의

- 우리 사회에서 자녀에 대한 가족의 지원은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규범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족은 최대한의 자원을 동원하여 자녀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음
 - 이 과정에서 가족의 부양부담이 점차 과중해졌고, 이런 자녀의 부양부담은 출산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8년부터 2014년까지 학업자녀가 있는 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비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증가율은 오히려 점차 둔화되고 있음
 - 저소득 가구의 경우 주거비 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2010년 이후 교육비 비중이 주거비 비중보다 작아지기 시작한 반면, 고소득 가구의 주거비 지출 비중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교육비 지출 비중이 가장 높았음
 - 자녀수별 특성에서 하위소득(1, 2분위) 가구는 두 자녀 이상이 되어도 교육비 지출 비중을 두 자녀일 때보다 늘리지 않거나 못하는 반면, 상위소득(4, 5분위) 가구는 두 자녀 이상이 되면 자녀수에 따라 교육비 비중을 증가시킴
- 분석결과에서,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소득계층에 따른 적절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음
 - 특히 출산이 부모 또는 자녀의 미래 삶에 대한 안정적 기대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족 부양부담의 완화는 곧 출산의 유리한 환경이 될 것임
 - 공교육비 및 사교육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방향 정립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저소득 계층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비율은 2010년 이후 변화 없이 10%로 유지되고 있으나, 향후 특별 공급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저소득계층의 경우 주거비 비중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연소득이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연 3.1% 금리를 적용하는데, 정부의 지원제도에서는 높은 수준임
 -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 역시 현재 2.7%(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학자금대출 이차지원제도를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대학생 생활비 대출의 경우 저소득계층의 무이자지원을 등록금대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비용지원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 6세 이하 추가공제 및 다자녀 공제가 2014년에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자녀 세액공제액이 너무 적어 현실적 지원 대책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공제세액의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집필 | 박종서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 문의 | 044-287-8190

발행인 | 김상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층~5층) | TEL 044)287-8000 | FAX 044)287-8052 |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